

칼럼



김윤호 주필, 행정학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제주도 한라산 하늘은 맑았다

지난 3월 22일(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김포 공항에 도착했다. 발열 체크와 휴대...

문인협회를 창립하고 2000년 종합 문예지 계간 「백두산문학」을 창간하고 백두산 역사문화탐방을 20회 주최하였다. 다른 단체를 따라간 것까지 하면 20회 이상 갔다.

분이었다. 제주도와 제주의 역사·문화, 특히 제주어(濟州語)를 끄적이 사랑하는 열정과 활동에 감동을 받았다.

다행히 비행기 착륙 좌석에 앉게 되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저 아래 도시들과 건물들이 아주 작아지고 구름 아래 어른거린다. 솟털처럼 떠 있는 몽게 구름 사이사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땅을 보면서 부동산 투기로 시끄러운 세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번 탐방으로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남은 여생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조국, 우리 땅을 열심히 찾아 다니며 배우고 사랑해야겠다.

자세히 보니 이 이사장의 튀어나온 두 눈과 몽통한 코, 덕성스러운 얼굴 모습이 평화와 사랑을 지키는 제주도 수호신이고 수문장, 한라산 산신령 돌하르방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촌(礎)을 간직한 살아있는 돌하르방을 만났으니, 제주 방문의 의의와 보람을 모두 만끽한 기분이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삶의 큰 축복이다.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은하계의 수 많은 작은 별 중에 하나라고 한다. 작은 별, 지구에서 사람들은 땅에 선을 그어 놓고 내 것, 네 것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남의 땅을 뺏으려고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광기어린 괴물이 인간이기도 하다.

한 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제주 공항에 고맙게도 우리 「백두산문학」 출신 이종실 수필가가 마중 나와 주었다. 제주 토박이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을 지내고 지금은 (사)제주어보존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귀포로 넘어가서 인연이 많은 조옥순 시인과 강영식 수필가(서귀포선경리조트오피스텔 회장)를 만났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제주시로 돌아와서 예약한 호텔 방에서 잠을 청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1990년 8월부터 갔는데, 한라산은 간지 20년 이상 되는 것 같다. 1994년 백두산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제주한우전문식당에서 제주 소주 '한라산 21'을 각 2병, 합 4병을 점심 겸해서 마셨다. 백두산 산신령이 그리운 한라산 산신령을 만난 기분이었다. 등단 수필도 잘 썼지만, 만나보니 인품은 더 훌륭했다. 부인도 향기로운

아침, 사람들에게 물어서 제주에서 성판악(城板岳)으로 가려고 서귀포행 버스를 탔으나, 서귀포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야 성판악을 지나지 않는 버스를 탔다는 것을 알았다. 운전기사에게 물어서 제주행 281번 버스를 타고 성판악에 11시 경에 내렸다.

과 바다의 여신을 상징하는 현무암 돌할망은 코로나 예방용 마스크 착용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세계자연유산 국립공원 한라산 입장료는 없었다. 제주도의 후한 인심을 느꼈다. 해발 1950m 한라산 정상 백록담(白鹿潭)은 성판악에서 9.6km,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는 탐방로 안내판이 올라가는 길 곳곳에 친절하게 세워져 있었다.

바람도 없고 날씨는 쾌청하다. 나무와 돌로 길은 잘 정돈되어 있다. 모처럼 등하리에 맘을 흠뻑 흘리며 올라갔다. 올라갈수록 송송 구멍이 뚫린 화산석(火山石)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응달진 골짜기에는 털늑은 잔설이 남아 있었다. 백록담 아래 2.3km에 있는 마지막 휴게소, 진달래밭 대피소에 도착해서 빵과 음료수로 늦은 점심을 때웠다.

2시 30분 백록담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니,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만류했다. 백록담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너무 늦다는 것이다. 진달래밭 대피소를 12시 30분에 통과해야 무난히 정상에 갔다가 해지기 전에 하산할 수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 말이 합리적이어서 나는 백록담은 다음을 기약하고 하산했다. 진달래도 아직 피지 안했고, 푸른 계절을 꿈꾸며 한겨울 추위를 견디어낸 맨살의 나뭇(裸木)들이 환영해 주는 초봄의 한라산도 참 좋았다. 자신을 냉정히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한라산 산신령님이 나를 사랑해서 한 번 더 오라고 하는 것 같았다. 다음에는 돌하르방과 돌할망도 모르게 새벽 일찍 찾아갈 생각이다.

기고

안일함을 버리고 비상시를 대비하자

우리는 건물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물건이 쌓여있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당연히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일이 아니라 하는 이유로 모른척 지나치는 순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김재승 함평소방서장

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다중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이가 급히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로 '생명의 문'이라 불린다. 보통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실내에 가득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지기에 어둡고 두려운 화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상구는 항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사람들은 안전한 나날이 이어지면 일상의 소중함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편의를 위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보안상의 문제로 아예 폐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긴박한 순간에 피난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함평소방서는 비상구 물건 적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

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와 같은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포상제의 목적은 불법행위 적발 시 군민들의 신고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동참자는 취지를 띠고 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적당한 허물은 눈감아 주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몇 번의 눈 감음으로 인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다.

안전한 사회의 기틀은 작은 관심과 책임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평안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 고장신고 123
▲가스사고신고 383-0019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무인단속 체납 시 '소유권 행사' 제한

운전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소유권 행사 등이 제한되고 있다.

종종 접수되는 민원사례를 보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체납 과태료를 다 납부했는데, 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이 왔느냐', '왜 경찰이 차량번호판을 떼느냐'의 민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1. 7. 6일부터 교통무인단속 차량에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이 제한되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시 교통무인단속 체납과태료를 완납해야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시 과태료를 납부했

데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민원은 압류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며, 독촉장은 압류로 전환되기 전에 위반한 과태료인 것이다. 폐차장이나 매매상사의 과태료를 다 납부했는데 폐차나 이전에 안 될 리가 없다는 말 등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반드시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무인단속 체납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사전예고 후 번호판을 영치(영치증교부)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카드결제(www.cardrotax.or.kr) 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2% 부과)도 가능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읍내파출소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율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